

▶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JUMF)' 내일부터 사흘간 개최

'음악'으로 한여름밤 열기 식혀보자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8월 초

파티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JUMF)에서 '음악'으로 한여름의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 보는 건 어떨는지.

오는 8월 4~6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JUMF 2017에는 YB, NELL, 이적, 불쌍한 사촌기, FT아일랜드, 10CM, 사이먼도미닉, 로꼬, 캣츠, DAY6, 이수(별세터매스), 박정수 등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음악에너지를 발산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록·펑크·힙합·코어·해비메탈·어쿠스틱 밴드들이 출연하는 로얄 스테이지(KING OF STAGE, 낮 12시40분~오후 10시30분)와 EDM·K-POP·힙합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얼티밋 나잇(ULTIMATE NIGHTS, 오후 10시30분~이튿날 오전 1시30분)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은 하나의 무대에 컨셉과 구성이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 장의 입장권으로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축하공연 대학가요제의 락을 잇는 'JUMF 창작가요제'의 수상 팀의 쇼케이스 무대도 만날 수 있다. JUMF 측은 본 페스

이적·NELL 등 뮤지션들 대거 참여

로얄 스테이지·얼티밋 나잇 등 구성

'창작가요제' 수상팀 쇼케이스 무대도

티발에 앞서 '2017 JUMF 창작가요제'(총 상금 3천만 원)를 열고 13팀의 인디 아티스트를 발굴 지난 6월 시상했다.

이날 무대에는 강연을 통해 선정된 상위 3팀이 페스티벌 메인무대에 아티스트 자격으로 출연했다.

본 공연 외에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선 'JUMF 아시안'에는 축제의 또 다른 재미인 먹거리와 해나·캐리커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캄라마켓이 선을 보인다. 또한 피크닉존에선 돛자리와 그늘막을 준비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전주MBC 주최·주관하는 JUMF는 호남 유일의 대규모 음악축제로 정평이 났다.

축제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불문율을 깬다. 첫 회인 2010년에는 2만 명의 관객이 참여하며 지역 뮤직페스티벌의 가능성과 자력을 보여주기도 했다./정해은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8월 상설공연 '달하 노피곰 도다샤' 6일 무대

정읍시립국악단의 8월 상설공연이 오는 6일 결석한다. 매일 보름 상설공연을 가져오고 있는 시립국악단은 정읍시립국악단 야외복합무대에서 이날 보름인 당일 저녁 '달하 노피곰 도다샤' 공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립국악단은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휴가를 맞아 정읍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우리 가락과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700가요를 선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700가요에는 80년대 후반 인기를 모았던 '집사어른'으로 정성기를 누렸던 '이치현과 박남현'이 초청가수로 출연한다.

공연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이념부상에서는 공연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민속놀이와 무드마크, 향수 만들기, 야광 퍼레이드와 팔찌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과 먹거리도 판매한다. /정음·김태환 기자

판소리극 '화용도', 올 무대공연 페스티벌 우수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문화예술공작소의 '판소리극 화용도'와 산조전통무용단의 '맘, 그리운 날에'가 2017 무대공연작품 페스티벌의 우수 공연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우수작 선정기준은 객석 점유율, 관람객 호응도, 전문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 작품에는 각각 2천만원과 1,500만원의 2차 공연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소리 적벽가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공작소(대표 안영민)의 '판소리극 화용도'는 장영에 집착한 다윗 병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젊은 전통예술인을 주축으로 제작된 공



'맘, 그리운 날에' 도 함께 선정

연은 극작과 연출, 소리와 연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냄으로써 전통예술에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국립무형유산원 장

봉공연 연출가 발굴 공모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산조전통무용단(대표 문정근)의 '맘, 그리운 날에'는 무용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모노드라마다. 작품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어머니를 그리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도 여전히 질실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했다.

한편 지난 7월 1~10일 한 국소리문화의정당에서 진행된 '무대공연작품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재단이 추진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된 18개 무대공연작품 10일간 통합발표 형식으로 선보였다. /정해은 기자

전주소리축제 2차 티켓 예매 진행 중

조직위, 유료공연 대상 15일까지 50% 할인 혜택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조직위원장 김한)는 유료공연을 대상으로 2차 티켓 판매를 진행 중이다.

조직위는 오는 15일까지 소리축제가 추천하는 메인공연에 대해 조기 예매 이벤트로 5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공연은 개막작 'Color of Soul(대갈 나는 소리)'를 비롯해 월드뮤직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비르코폴로의 음악여행', 오로지 북 하나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선취태환의 뜨거운 우정의 무대 '공예의노래-고집(張執)', 일상의 소품들이 무대 위 살아있는 주인공으로 변하는 '어린이공연 물체놀이극 경감공주와 은달바보' 등으로 티켓링크(www.ticketlink.or.kr)를 통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의 집' 페스티벌을 개발해 월드뮤직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월드뮤직의 정용관, 음악의집 특설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유료 공연에 대해 패키지 구입할 시 40% 할인, 가격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체(30명 이상)관람객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C카드와 신용카드 카드 30% 할인, 문화누리카드와 60세 이상의 성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우는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할 예매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명리조트 부산 숙박권(2인) 등을 증정한다. /정해은 기자

扶來滿福-부안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

“핫(hot) 뜨거운 여름을 부탁해!! 축복의 땅 부안아”

부안해수욕장 개장기간 : 7. 1 ~ 8. 15(46일간)